

전남도, 지역 핵심현안 내년도 국비 확보 '시동'

김 지사, 임기근 기재부2차관 면담
“지역 균형발전 위한 예산 반영을”
SOC·김산업진흥원 등 지원 요청
중앙부처·기재부·국회 등 중점 방문

전라남도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도 자체 대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SOC 확충 등 근본적인 현안 해결을 통해 지역 여건이 개선되도록 내년도 국고예산의 적극적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과 관련하여 “전남의 도로·철도 환경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며 “차질 없는 SOC 사업이 추진돼 지역 균형발전의 큰 역할을 하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립 김 산업 진흥원과 관련하여 “수출 효자품목 1위인 김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김영록 전남남도지사(오른쪽)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전남도 핵심 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연구·생산·유통·수출까지 김 산업을 종합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인프라가 절실하다”며 “전국 물김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전남에 국립 김 산업 진흥원이 건립되도록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해 국가주도의 혁신모델이 필요하다”며 “전남 함평에 이 전 중인 국립축산과학원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선진축산업의 허브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단 구축’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인프라 한계 극복과 기술창업 성공을 위한 ‘스케일업 실증센터 구축’ △전국 유일 문화콘텐츠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케이(K)-콘텐츠의 매력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K-디즈니 에나·웹툰 인재양성 거점 기관 조성’ 등 핵심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선 △전라선 고속화철도 건설(총 1조 9326억원·2026년 10억원) △고흥~봉래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총 5142억원·2026년 50억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총 1441억원·2026년 54억원)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총 5945억원·2026년 102억원) 등이 조기 통과돼 내년도 국비가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이에 임기근 2차관은 “전남 현안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으며, 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중점적으로 방문해 국비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 풍암호수공원, 오는 21일부터 폐쇄

6개 진출입로 2년간 통행제한
오염원 유입 방지턱 등 설치

광주 대표 수변공원으로 이름을 알린 풍암호수공원이 수질 개선 공사로 폐쇄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근린공원 1지구 개선 공사를 시작하는 오는 21일부터 풍암호수공원의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하수·편의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공사는 2027년 7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 기간 공원을 오가는 6개의 진출입로

도 모두 통행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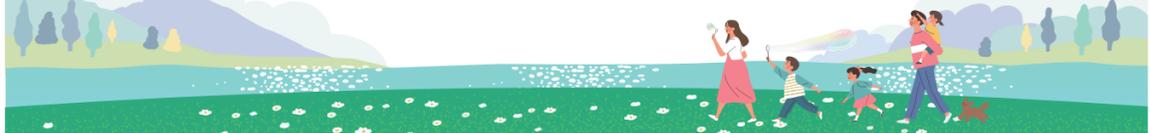
다만 부분 폐쇄나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산책로 이용을 일부 주민이 요구해 폐쇄 방식은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관계자는 “풍암호수공원을 이용하지 못해 아쉽다는 민원 전화가 많다”며 “당초 계획대로 21일 공원을 폐쇄하되 공사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풍암호수는 1951년 저수지로 축조돼 농업용수를 공급하다가 중앙 근린공원으

로 지정된 뒤 산책로, 생태학습장, 장미원 등을 갖췄다. 지역 대표 수변공원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수질이 악화한 상황에서 관리 주체도 불명확해 여름이면 녹조와 악취로 ‘녹조라떼’ 공원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주민들은 2022년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촉구해왔다. 공사에서는 호수로 들어오는 오염원을 막는 우수 유입 방지턱을 설치하고, 모래·자갈이 혼합된 토사를 까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상이 기자**



전남도, 재해농가 전략작물 직불금 기준 완화

작물 미재배시 시군 판단 지급
25일까지 재해보험 가입 연장

전라남도가 여름철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논·밭,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조건을 완화해 지급키로 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재배, 수확까지 이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밭, 옥수수 등 하계 전략작물 재배농가에 한해 이행조건을 완화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파종 불가, 작물 전환

또는 농지 유실 등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농가는 오는 8월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12월께 ha당 100만~5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논·밭 피해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안정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도 당초 18일에서 25일까지 연장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피해 농가는 8월31일까지 피해신고서를 꼭 제출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 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